

도시형생활주택 전세난 해소 도움 안된다

광주 최근 5년 3611가구 인허가 80.5%가 10평도 안되는 원룸형

정부가 전세난 해결방안으로 권장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대부분 초소형 원룸으로 건축되면서 전세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와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2월 말까지 광주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4건 56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1건 12가구, 2010년 2건 123가구, 지난해 59건 2907가구 등 해마다 급증, 최근 5년간 총 3611가구가 인허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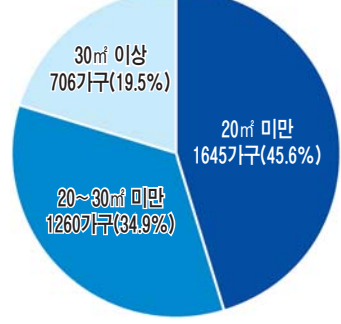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증한 것은 전세난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가

규제를 풀고 기금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50㎡에 해당하는 원룸형과 85㎡(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 규모)미만의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분류되는 공동주택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도시지역에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빨리 지을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전세난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광주 시내에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10채 중 8채 이상이 전용면적 30㎡미만(9평)의 초소형이어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

■ 광주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별 가구수



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일보가 광주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611가구 중 91.6%인 3307가구가 원룸형이었다. 다세대와 연립은 각각 전용면적별로는 20㎡(6평)미만이 1645가구(45.6%), 20㎡~30㎡(9평)미만이 1260가구(34.9%)로, 도시형

생활주택 10채 중 8채(80.5%) 이상이 1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소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초소형 위주로 건축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은 물론, 실수요층인 2~3인가구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세난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대부분 원룸형으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전세 실수요층인 2~3인가구가 살기에는 부적합해 전세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도 "개발업체들이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원룸형이었다. 다세대와 연립은 각각 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세 안정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6개 기업 518억 투자협약

전남도는 10일 전남도청에서 (주) 마하스마트윈도우 등 6개 기업과 518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297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마하스마트윈도우는 나주 문평농공단지에 94억원을 투자해 스마트윈도우(Smart Window) 산업에 필요한 필름을 생산하게 된다. 스마트윈도우는 태양광 투과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유리다. 또 (주)백이산은 219억 원을 투입해 보성읍에 은천시설과 숙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포프리에코랩 영농조합법인도 보



성 노동면에 87억원을 들여 체험농장과 동물복지형 농장을 조성한다.

이 밖에 (주)GM커피는 함평군 화교면에 40억원을 투자해 전복·장어 박시설 등을 갖춘 콘도 등을 건립하고, 포프리에코랩 영농조합법인은 보

성 나주 산포면에 42억원을 투자해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를 생산한다. 하나기공도 영광 대마산단에 36억을 투자해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철골 구조물을 제조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신용 최고등급

국내신용사 평가...작년 이어 'AAA' 획득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안정적)'의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공사가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 'AAA'는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인 기관에 부여되는 신용등급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그동안 ▲물동량 부문 국내 2위 항만인 여수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기반 보유 ▲1조5552억 원에 이르는 국유재산 출자 및 이에 따른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 안정성 강화 ▲정부 국고지원에 따른 재정기반 확충 등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

한편 2010년말 1조467억 원에 달했던 부채는 2011년말 현재 9862억 원으로 605억 원이 축소되는 등 점진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박영진기자 pyj4079@

2010년 기술무역 135억달러 넘어서

국내기업의 2010년 기술무역 규모가 135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국내기업의 기술무역 거래현황을 분석한 '2010년도 기술무역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0년 기술무역거래가 전년도의 120억달러보다 13% 증가한 135억900만달러였다고 밝혔다. 기술수출은 33억4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반면 기술수입은 102억3400만달러로 21.3% 증가했다.

기술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규모가 큰 전기전자 및 건설 분야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술수입액이 늘어난 이유는 IT분야 핵심 기술 등을 도입하고 해외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 증가가 꼽혔다.

주요 상대국별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슬로바키아 등에서 자동차와 컴퓨터 해외기술투자로 흑자를 거둔 반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핵심기술료 등을 지급해 적자를 봤다. /*연합뉴스

60년 역사 광주 리버사이드 호텔 이번주내 철거...복합쇼핑몰 신축

광주 구도심의 대표적 호텔이었던 리버사이드 관광호텔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10일 건물주에 따르면 광주 동구 호남동 72-1번지 소재 리버사이드 관광호텔 건물이 이번주 내로 철거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복합쇼핑몰 신축공사가 진행 될 계획이다.

1950년대 문을 연 것으로 알려진 리버사이드 관광호텔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 8월

부터 영업을 중단한 채 빈 건물로 방치돼 왔다.

리버사이드 관광호텔 부지에 들어설 쇼핑몰은 대지 1815㎡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의류매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1층은 여성서류 매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 4층에는 커피숍과 피자 가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삼성전자 국내 최대용량 김치냉장고 출시



삼성전자는 사계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신제품 7종을 10일 출시했다. 신제품 김치냉장고 지펠 아삭 그랑데스타일 508은 508ℓ의 국내 최대용량으로 지펠 그랑데스타일 양문형 냉장고와 패밀리카 디자인을 구현했다.

상중하 칸마다 강력한 탈취기로 김치와 과일 냄새가 섞이지 않게 보관할 수 있고 '스마트 케어' 기능이 적용돼 스마트폰 앱에서 제품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고가는 270만~410만원 선이다.

/*연합뉴스

2분기 수출 회복세 전망

선행지수 3개월만에 상승세 반전

2분기엔 수출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수출경기가 1분기를 저점으로 삼고서 점차 회복돼 2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내외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출이 발표한 '2분기 수출전망'을 보면 수출선행지수는 3분기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수출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한 이 지수가 높을수록 수출이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수출은 "브릭스(BRICS) 등 신흥시장국들의 경기둔화에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선행지표 상승과 반도체 등 IT산업 수익성 개선으로 수출선행지수가 1분기 대비 0.6% 상

승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탓에 3%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1분기 수출증가율 역시 3%였다.

수출이 3월 중 총 453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가 112로 1분기 99보다 상승했다. 이는 기업들의 2분기 수출경기에 대한 예상치를 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 수출채산성 전망지수와 수출물량 전망지수가 모두 1분기보다 올랐다. 기업들이 원화 약세와 함께 원자재 가격상승폭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까닭이다. 자금사정 전망지수 역시 1분기보다 내려 수출기업의 돈줄이 트일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94.41 (-2.67)
▲ 코스닥지수	484.77 (-2.03)
▲ 금리 (국고채 3년)	3.50% (-0.04)
▲ 원·달러 환율	1,140.50원 (+2.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코스피 이틀째 2000선 밑돌아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다 압박한 총선과 읍선만기일 등 국내외 변수를 탓에 경계심리가 증시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초음기에 들어간데다 3차 핵실험 우려까지 제기돼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0.13%(2.67포인트) 하락한

1,994.41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42%(2.03포인트) 떨어진 484.77로 마감했다.

아시아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0.09% 떨어졌고 대만 가권지수는 0.52% 올랐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88%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오른 1,139.6원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www.yjcdive.co.kr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아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트레일러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